남원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순항'

23만평 규모 조성… 1차 금속 등 45개 기업 유치 예정

남원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남원일반산업단지가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23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남원일반산업단지'가 우수관로 및 상·하수도 관로포설 완료한데 이어 45개 블록 중 38개 블록 토공작업과 내부도로망 구축을 완료하며 85%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남원시는 산업단지 조성 외에도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 지난 2019년 6월 28일 전북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을 승인(고시) 받아 2019년 7월 3일 분양임대 공고를 내고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한 바 있으며, 임대와 분양용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 기업 입주 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예정으로, 분양 면적은 49만6천㎡으로, 임대 면적은 9만천㎡, 분양가는 3.3㎡ 당 32만5천원 선이다.

남원시에서는 이곳에 식료품, 음료,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등 통신장비, 전기장비제조,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차 금속 등 45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조성이 완료되고 본격 가동되면 1조원의 매출과 3,500여 명의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효과를 비롯해, 단지 내 기업체 가동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이 연간 2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추어 기업유치 활동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입주가능 업종에 대한 관련기업 데이터베이스 작업과 분양 홍보물 발송, 주요 산업단지내 플래카드 게첨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분양과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인에게 투자환경과 지원제도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 일반산업단지는 광주대구고속도로와 순천완주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광주공항, 군산공항, 광양항, 군산항 등 하늘길과 바닷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남원 일반산업단지에서 기업의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청정 숲 가꾸기사업 확대 추진

임실군, 사업비 24억원 투입…1520ha 추진, 공공숲 가꾸기 등

임실군이 숲 가꾸기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관내 공·사유림을 대상으로 24억여원을 투입하여 1,520ha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전개한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 13억여원과 870ha에 비해 대거 확대된 면적이다.

올해 숲 가꾸기사업은 마을, 관광·휴양지 등 생활권 주변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경관 등 공익기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익 숲 가꾸기 50ha와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잡목 등을 제거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350ha와 잡풀, 덩굴류 등을 제거하는 조림지 가꾸기 1,120ha가 중점 추진된다.

또한 주요 도로변 등 공공성이 강한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및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산물수집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0명이 투입된다.

이어 병해충과 산림재해 등 산림피해 및 산림관련 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숲 가꾸기 패트롤 5명 등 15명의 인력이 투입돼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추진된다.

군은 숲 가꾸기를 통해 생태·환경적으로 각종 재해에 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고, 생활권 주변 산림을 건전하게 가꿔 숲에 대한 관심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킬 방침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탄소 흡수원으로서 숲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고사목과 우량수목의 생장을 저해하는 피압목 등을 제거해 나간다.

숲 가꾸기로 발생되는 부산물은 사랑의 땔감나누기를 통해 주위의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숲 가꾸기사업을 희망하는 산주는 임실군청 산림공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 민 군수는 "숲 가꾸기는 공기정화는 물론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산림의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회, 코로나 관련 긴급 의원총회 개최

관련시설 방역소독 등 확인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지난 2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지난 2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보고받는 등 관련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의원들은 남원지역에 확진자와 격리조치자가 없지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신천지신도 관련 대구방문자 여부와 관련시설 방역소독 등을 확인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넘어 현재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등 대응물품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윤지홍 의장은 재난상황에 준해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책 강구를 당부하며, "감염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의회차원에서도 총력을 기울여 확산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특별 위생 지도 점검 실시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오는 4월에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5월초 개최할 예정인 제90회춘향제와 제57회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쾌적한 숙박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과 소비자감시원(식품,공중) 등 4개반 1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나서서, 경기가 열리는 춘향골체육공원과 관덕정 주변을 포함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 배달음식 취급업소 등 143개소를 돌며 위생상태 점검 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적조치와 현장 종사자교육 등이 병행 실시되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기준 이행여부 ▲식중독 예방수칙 홍보(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친절위생서비스제공 및 바가지요금 근절 당부 ▲숙박업소의 객실, 침구, 욕실, 청결상태 ▲객실 먹는 물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 ▲요금표 및 영업신고증 게시 여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월 1회 소독 실시여부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순창군, 쌈을 품은 도넛 "빵 도시락" 출시

순창군이 추진 중인 '순창 빵 브랜드화 시범사업'으로 미생물캐릭터 마카롱을 출시한데 이어 도넛과 쌈을 결합한 '순창 빵 도시락'을 최근 출시해 인기몰이에 나섰다.

'순창 빵 도시락'은 빵을 관광상품화 하고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쌈 도넛, 치즈맛 도넛, 고추장맛 도넛 등 5종의 빵을 만들어 하나의 도시락에 담았다.

이번 도시락은 동네빵집인 '순창 땡 도넛'과 오랜 협의를 거쳐 아이들의 간식과 나들이용 도시락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맛과 영양,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쌈 도넛은 직접 개발한 도넛의 반을 갈라 상추, 무, 버섯, 시금치, 소고기 등 건강한 재료로 속을 채우고 순창고추장으로 개발한 소스를 뿌려 먹는 빵으로, 개인 취향에 따라 맛을 다르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쌈 도넛에 들어가는 고추장, 찹쌀가루 등을 순창산으로 사용하는 만큼 지역경제의 선순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쌈 도넛과 함께 개발한 '콩불', '땡볼'은 콩가루와 순창고추장으로 만든 소스를 묻힌 것으로, 바삭한 식감과 작고 아담한 크기로 아이들과 여성들이 음료와 함께 간단한 간식으로 즐기기에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 빵 도시락'을 만들어낸 '순창 땡 도넛' 황금화 대표는 "순창고추장을 이용한 도넛으로 순창의 대표 빵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면서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쌈을 활용해 디저트용 빵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제품 출시의 배경을 밝혔다.

군은 쌈 도넛을 넣은 '순창 빵 도시락'이 고추를 발효시켜 만든 매운맛 으라차차 소스와 잘 어우러지는 것을 고려하여 기호에 따라 뿌려 먹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끼니 대용을 넘어 간식으로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선거 대비 공직기강 집중 감찰 실시

임실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계별 공직기강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지난 1월부터 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군은 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구성하여 단계별 감찰활동을 하고 있다.

1단계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60일 전까지('20.1.16.~2.14.) 선거 비리 신고·첩보, 지역 언론 모니터링 등 감찰 활동을 하여 왔으며, 2단계로 선거일 전 60일부터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20.2.15.~3.25.) 후보자 출신지역 등 취약지역 중점 점검, 후보자를 위한 모임 주선 및 SNS 등을 통한 지지 등 빈번한 위반사례 중심으로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 3단계로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20.3.26~4.14) 직·간접으로 선거에 참여·관여하는 행위 현장감찰 강화 등 감찰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 감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다중집합시설 방역소독

순창군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내 다중집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대구와 경북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적극 방역에 나선 것이다. 지난 24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관내 다중집합시설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가정은 가정용 락스나 알코올을 0.05% 혹은 500ppm의 배율로 물에 희석하여 천에 적신 후 스위치, 손잡이, 테이블, 창문 등 집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주기적으로 닦고 소독해야 한다. 또한 소독후에는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해 손 씻기를 하여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야한다. /순창=이양원 기자